

전북연구원 보도자료

아름다운 산하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 286-9206)
<http://www.jthink.kr>

- 문의 : 연구본부장 이강진 연구위원
(063-280-7141)
- 담당자 : 여성정책연구소 전희진 부연구위원
(063-280-7183)

보도시점 : 2020년 9 월 3일(목)부터

채식시장 성장에 따른 전북의 대응 전략 필요

- 전 세계 채식시장 성장에 따른 대체육 산업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 채식메뉴 표시제 도입 및 교육을 통한 채식친화적 관광도시 조성
-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생태문명적 전환의 방향으로 채식친화 환경 마련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인수공통 전염병의 확산과 기후변화 등에 대한 반성에 분위기가 고조되며 실천적 차원에서 채식주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채식시장 성장에 따른 전북의 대응 전략』이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채식시장 성장에 대해 살펴보고, 전북의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 친환경 실천의 방법 중 하나인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채식인구는 1억 8000만 명, 국내 채식인구는 150만 명으로 추정된다. 전북연구원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채식인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채식 지향도 고조되고 있어 채식 시장 및 대체육 시장의 전망이 밝다고 지적했다.
- 전희진 박사(연구책임)는 친환경 가치 확산과 채식 친화 기반 마

련을 위해 세 가지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첫째, 전라북도의 원료지향형 입지를 이용한 대체식품 산업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체육 맞춤형 종자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둘째, 채식 친화적 관광도시의 위상을 달성하기 위해 도내 음식점이나 상점에 채식메뉴 표시제 도입과 채식메뉴 개발 교육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채식친화 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전통과 채식의 조화를 이룬 관광도시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 셋째, 공공급식 등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여 문화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을 높이고, 생명중심, 자연과 인간의 조화,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생태문명적 전환의 한 방향으로 채식친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